

아동의 성,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순종행동간의 관계

Toddler's Compliance as a Function of Gender, Temperament, and
Inhibition of the Child, and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박성연(Seong Yeon Park)¹⁾

케네스 루빈(Kenneth H. Rubin)²⁾

정옥분(Ock Boon Chung)³⁾

윤종희(Chong Hee Yoon)⁴⁾

도현심(Hyun Sim Doh)⁵⁾

ABSTRACT

Participants in this study on links between toddlers' compliance and variables were 97 toddlers and their mothers. Instruments were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Goldsmith, 1988) and the Child Rearing Practice Report-Q Sort (Block, 1981). Toddlers' compliance was observed on *clean-up* and *behavior-delay* tasks. Data analysis was by logistic and regression analyses. Results on the *clean-up task* indicated lower compliance by difficult children and higher compliance by girls. On the *behavior-delay task*, boys with less difficult temperament showed higher compliance by mother's higher punishment attitudes, whereas highly difficult boys were more compliant by mother's lower punishment attitudes. Girls' compliance was higher than boys in the low inhibition group whereas boys' compliance was higher than girls in the high inhibition group.

Key Words : 순종(compliance), 행동억제(inhibition), 기질(temperament), 처벌적 양육행동(punishment-oriented parenting).

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아동학 협동과정 교수

²⁾ 메릴랜드주립대학교 인간발달학과 교수

³⁾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⁴⁾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⁵⁾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및 아동학 협동과정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eong Yeon Park, Dept. of Psycholog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E-mail : psy@ewha.ac.kr

I. 서 론

순종행동(compliance)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의 요구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자아조절능력, 또는 자아통제력의 초기 형태로서, 어렸을 때의 순종행동은 사회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동은 물론 도덕적 행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동이 사회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사회적 기술 중 하나이다.

특히 걸음마기에는 운동능력의 발달과 자기주장적인 행동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모는 자녀양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아동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아통제력을 요구하게 된다(Schaffer & Crook, 1980). 이러한 사회화의 기초는 생후 첫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아동에게 해야 하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등 외적인 통제를 하게 되고, 아동은 이러한 외적인 통제를 기초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내면화된 통제력을 발달시키게 된다(Kochanska & Aksan, 1995).

외부적인 통제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던 아동들이 점차 내적인 통제력을 갖게 되는 데는 성숙과 경험의 역할이 중요하다(Kopp, 1982). 아동은 자발적으로 장난감을 치우는 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성숙된 자기조절 능력을 나타내기도(Houser, Schuetze, & Eiden, 2003)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 순종정도나 자기조절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n, Rubin, Liu, Chen, Wang, Li, Gao, Cen, Gu, & Li, 2003; Vaughn, Kopp, & Krakow, 1984). 이외에도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2-3세 아동의 경우 어떤 아동은 대체로 순종적이며 어떤 아동들은 비협조적이거나 순종하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Kochanska,

1995). 이에 개인차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어떤 특성이 부모의 특정행동을 야기하게 된다는 관점에서(Scarr & McCartney, 1983), 기질을 주된 변인으로 다루거나, 양육행동과 발달적인 결과 사이에 기질이 중재하거나 기질과 발달적인 결과 사이에 양육행동 또는 부모자녀관계의 질(e.g. Kochanska, Aksan, Knaack, & Rhines, 2004)이 중재역할을 한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어렸을 적의 아동의 순종행동이나 자아통제력에서의 개인차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도덕성 발달이나 이후의 적응 또는 문제 행동과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순종행동은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Kochanska et al., 2004).

1. 아동의 특성과 순종행동 : 성, 기질 및 행동 억제

동서양의 문헌을 고찰해 보면 순종행동을 비롯한 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걸음마기부터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아는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대체로 남아보다 협조적이고 순종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혜경 · 조복희, 1999; 하지영 · 박성연, 2005; Chen et al., 2003; Kochanska, 1995). 예를 들어, 장난감을 정리하도록 하거나,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장난감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등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충동적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으며(Schneider-Rosen & Wenz-Gross, 1990), 문화적인 보편성을 나타내어 중국과 캐나다의 경우 모두, 걸음마기 여아가 남아보다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순종 행동을 보였다(Chen et al., 2003). Feldman과 Klein (2003) 역시 내면화의 초기 형태인 자아조절적인 순종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

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Kochanska 등(2004)은 도덕적 행동이나 도덕적 자아, 도덕적 인지 등을 총합한 양심점수에서 56개월 된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아조절 능력이나 도덕적 행동에서의 차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화 시키는 과정에서 남아보다 여아에게 보다 자아조절능력이나 순종, 인내를 강조하는데 기인할 수 있다(Cheah & Park, 2006; Kochanska & Aksan, 1995; Park & Cheah, 2005).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신영아, 2007; Braungart-Reiker, Garwood, & Stifter, 1997; Stifter, Spinrad, & Braungart-Reiker, 1999; Kaler & Kopp, 1990)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여아들이 남아보다 순종과 협력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대상인 우리나라 걸음마기 여아 역시 남아보다 순종적일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나, 성차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서 과연 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된다.

아동의 성이나 연령 외에도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질이론으로 유명한 Rothbart 와 Derryberry(1981)에 의하면, 기질은 반응성(reactivity)이나 자기조절(self-regulation) 능력에서의 타고난 개인차로 정의된다. 반응성이란 정서나 운동적 활동 및 기타 관련된 반응의 각성이며, 조절능력은 반응성 정도를 완화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주의집중(attention), 접근/회피 (approach-avoidance), 자기진정(self-soothing)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부모의 요구에 대해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나 자기

조절능력 등의 기질은 순종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예컨대, 정서적인 반응성이 강한 까다로운 아동들은 순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적인 흥분을 조절할 수 있는 자아조절능력이 부족하거나, 순종을 요구하는 사회화요구에 대해 저항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까다롭거나 화를 잘 내는 기질, 두려움을 보이는 기질은 순종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되며, 많은 연구들에서 특히 까다로운 기질이나 정서적인 조절능력(불)순종행동이나 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aungart-Rieker et al., 1997; Houser et al., 2003; Rubin, Coplan, Fox, & Calkins, 1995; Stifter et al., 1999). 통제력 발달이나 규칙의 내면화에 있어 기질의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두기 시작한 대표적인 학자인 Kochanska(1993, 1995)는 좌절에 대한 통제력이나 조절능력, 또는 두려움은 양심수준과 직접적으로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역시 이러한 기질적 특성이 순종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억제는 두려움이나 불안 등 타고난 기질 및 정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Kagan, 1989; 1994; Park, Belsky, Putnam, & Crnic, 1997), 정서조절 능력의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Calkins & Fox, 1992; Calkins, Fox, & Marshall, 1996). 결국, 걸음마기 아동의 낮은 정서조절 능력은 행동억제와 관련이 있고, 낮은 정서조절 능력이 불순종 행동과 관련 된다면, 행동억제가 높을 경우 순종행동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행동억제는 아동이 주로 낮은 상황에서 나타내는 위축행동이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순종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는 순종(또는 불순종)정도를 측정한다기보다는 행동억제의 한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보고한 두려워하는 기질과 관찰된 행동억제는 순종행동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순종행동은 요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신영아, 2007; Kuczynski & Kochanska, 1995), 순종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행동억제의 영향은 다를 것으로 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실 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순종행동을 중심으로 기질이나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본 상당수의 연구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성으로 대표되는 까다로운 기질과 두려워하는 기질 및 관찰된 행동억제와 실험실에서의 *clean-up* 과제 및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순종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양육행동과 아동의 순종행동

순종행동은 어머니와 걸음마기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아동의 타고난 특성인 기질 외에도 어머니와 아동 간 형성되는 긍정적인 유대관계나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반응성 및 양육행동은 순종행동 발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Kochanska, Forman, & Coy, 1999). 여러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통제방식은 가정이나 실험실 상황에서의 아동의 순종행동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된다. 대체로 강압적이거나 처벌지향적인 양육은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머니의 강압적인 통제행동은 아동의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순종하지 않거나 반항하는 행동과 관련이 되는 한편, 어머니의 합리적인 지도는 순종과 관련된다(신영아, 2007; Crockenberg & Litman, 1990; Kochanska & Aksan, 1995; Kuczynski & Kochanska, 1995). 같

은 맥락에서 Braungart-Rieker 등(199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통제적일 때, 30개월 된 아동은 불순종하며, 덜 성숙한 순종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이나 통제방법이 아동에게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설명하거나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순종행동을 발달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실망스럽게도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Kochanska (1993)은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순종행동 및 도덕적 행동의 사회화에 관한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덕적 행동의 발달에서 기질과 양육행동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기질이나 양육행동은 도덕적 행동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주 효과 모델). 또 다른 한 가지는 아동의 기질이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재하거나 또는 다른 양육방식이 다른 기질을 가진 아동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상호작용 모델 또는 중재모델). 즉 아동의 순종행동이나 도덕성은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발달적 결과를 초래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최근에 이르러 연구자들은 양육행동과 순종행동, 또는 기질과 순종행동간의 관계를 매개 또는 중재하는 변인들을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순종행동이나 도덕적 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발달경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Braungart-Rieker 등(1997)은 부정적 반응성이 높은 걸음마기 아동은 실험실에서 나타내는 불순종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을 매개로

불순종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한편 Kochanska(1997)는 걸음마기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아동의 기질적 차이에 따른 양육행동의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중재모델을 입증하였다. 즉 두려움이 많은 아동의 경우는 걸음마기 때의 강압적이지 않은 '온화한 지도'가 5세 아동의 도덕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에, 두려움이 없는 아동의 경우는 그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나아가 Kochanska 등(2004)은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의 질에 착안하여 같은 양육행동이라도 관계의 질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그들은 양육행동으로 인한 애착의 안정성을 중재변인으로 연구한 결과,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애착의 안정성으로 인한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Chen 등(2003)에 의하면, 중국의 걸음마기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처벌적인 양육태도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행동(committed compliance)과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낸 한편, 협조적이기는 하나 되풀이 지시해야만 하는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순종행동(situational compliance)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캐나다 아동의 경우는 이러한 처벌적 양육과 순종행동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문화적 차이 또한 처벌적 양육행동과 순종행동간의 관계에서 중재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발달의 유기체적 특수성 이론(Wachs & Gandour, 1983)에 근거해 볼 때도 순종행동 발달에 있어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고찰한 몇몇 연구 외에는 기질이나 양육행동의 주 효과만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 기질 및 행동억제가 실험실 상황에서의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미치는 주 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 기질 및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은 각각 또는 상호작용하여 clean-up 과제에서의 아동의 순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 기질 및 행동억제와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은 각각 또는 상호작용하여 만족지연 과제에서의 아동의 순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기질이 까다롭거나 두려움이 많을수록 순종행동이 낮을 것으로 가정되며, 순종과 관련된 요구내용(또는 상황)에 따라 행동억제의 영향은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처벌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순종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질이나 행동억제와 상호작용하여 순종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2세 유아 97명(남아 47명, 여아 50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평균월령은 24.2개월이며($SD=1.08$),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1.2세였고($SD=3.33$), 어머니의 약 79%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나타내었다.

2. 측정도구

예측변인인 기질과 행동억제 측정을 위해서 어머니용 질문지를 통해 2세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였으며, 구조화된 실험상황에서 2세 아동이 나타내는 행동억제 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Q-sort 방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다. 한편 종속 변인으로는 2세 아동이 실험상황¹⁾에서 나타내는 순종행동 정도를 측정하였다.

1) 아동의 기질척도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111개 문항으로 구성된 Goldsmith(1988)의 부모용 TBAQ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TBAQ는 활동수준(activity level), 사회적 두려움(social fearfulness), 화를 잘 냄(anger proneness), 쾌활함(Pleasure), 관심도/지구력(interest/persistence)의 다섯 가지 기질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3개 요인을 추출하고, 그에 포함된 문항내용을 근거로 쉬운 기질, 까다로운 기질, 두려워하는 기질로 명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질요인 중, 두려워하는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요인만을 사용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에는 높은 활동성 및 화를 내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내용이, 두려워하는 기질에는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두려움이나 불안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0점~7점까지이며, 각 문항에 대한 행동을 본 적이 없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0점을 받게 되며, 그 외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1점) 부터 '항상 그렇다'(7점)까지의 점수를 받게 된다. 각 기질 점수는 0

점을 받은 문항을 제외한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까다로움이나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α 로 측정된 까다로운 기질과 두려워하는 기질의 문항 내적일치도는 각각 .95와 .92로 척도의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의 행동억제 측정

아동의 행동억제는 본 연구 대상인 2세 아동이 낯선 사물과 낯선 사람이 있는 낯선 실험실에서 나타내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측정하였다[실험상황에 대한 내용은 정옥분·Rubin·박성연·윤종희·도현심(200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행동억제는 다면적인 특성을 지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관점(Kochanska & Radke-Yarrow, 1992; Rubin, Hastings, Stewart, Henderson, & Chen, 1997)에서 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과 비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으로 구분하여 점수화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비사회적 행동억제(non-social inhibition)는 낯선 실험실에서의 자유놀이¹과 2 상황에서 스스로 노는 대신, 낯설어하며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비사회적 행동억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하고 어머니와 신체적으로 접촉한 시간의 양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사회적 행동억제(adult-social inhibition)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트럭, 로봇, 터널 등 3가지 에피소드(실험자와 아동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이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에서 어머니와의 접촉을 지속한 시간과 실험자의 요청에 따라 각 물체에 다가가기까지 걸린 시간을 사용하였다. 자유놀이 상황과 트럭, 로봇, 터널 에피소드에서 측정된 모든 시간의 단위는 '초'이며,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관련된 2개 점수와 사회적 행동억제 6개 점수는 그 각각을 Z 점수로 변환한 후 합산하

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인과 절차는 Rubin의 8개국 공동연구자료(예 : Rubin et al., 2006)의 일부임.

었다. 합산된 비사회적 행동억제 점수와 사회적 행동억제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둘간의 상관계수가 높아($r=.58, p<.001$) 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비사회적 행동억제와 사회적 행동억제 점수를 합한 총점을 이용하였다. 관찰자 훈련을 거친 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억제 점수는 관찰자간 신뢰도 범위 77~97%로 평균 87%이었다.

3)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을 위해서는 91개의 Q-sort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 Block(1981)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 Report)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CRPR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91개의 카드를 읽고 자신의 양육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사실과 전혀 다르다(1)'에서 '사실과 매우 같다(7)'까지의 점수로 된 7개의 더미에 각각 13장의 카드를 분류하도록 되어있다. CRPR은 수용, 거부, 성취격려, 독립심격려, 처벌지향적, 과보호의 6개의 양육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처벌지향적 양육행동의 9문항의 평균점수만을 사용하였다. 처벌지향적 행동 문항의 예로는 '나는 처벌이 가장 좋은 훈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이에게 잘못하면 벌을 준다고 가르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처벌지향적 양육행동의 Cronbach α 값은 .66이었다.

4) 순종행동

아동의 순종행동은 실험실에서 수행된 *clean-up* 과제(요구에 대한 순종)와 만족지연과제(금지된 행동에 대한 순종)에서의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측정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아동의 순종행동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왔다(Braungart-Rieker et al., 1997; Chen et al., 2003; Kochanska & Aksan, 1995). *Clean-up* 과제에서는 어머니와 아동이 낯선 실험실에 들어온 시간부터 10분간 자유놀이를 하게한 후(에피소드 1), 실험자가 방에 들어와 어머니에게 아동으로 하여금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은 치우도록 격려할 것을 부탁한다(에피소드 2). 본 연구에서는 에피소드 2에서 어머니가 치우라고 격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전혀 치우지 않은 경우를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장난감을 완전히 치우지는 못하였으나 아동들이 자신이 가지고 놀던 대부분의 장난감들을 스스로 치우거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치운 경우를 순종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만족지연 과제에서의 아동의 순종행동은 위에서 언급된 실험실 상황 중 에피소드 7인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측정되었다. 만족지연 과제에서는 실험자가 종이와 크레용을 가지고 들어와 아동용 책상위에 종이와 크레용을 놓은 후 의자에 아동을 앉히고, 실험자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그동안 만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나간다. 이 에피소드는 3분간 지속 되는데, 실험자가 나간 후 아동이 크레용을 쥐고 그리기 시작할 때까지 걸린 시간(latency period)을 측정한다. 측정된 시간의 단위는 '초'이며, 본 연구에서 순종정도는 에피소드 7의 총 시간에 대한 크레용 쥐고 그리기 시작한 때까지 걸린 시간의 비율점수로 측정되었다. 순종행동점수에 관한 관찰자간 신뢰도범위는 75~89%로 평균 82%이었다.

3. 자료분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

인들 간의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인 아동의 성, 기질특성(까다로운 기질과 두려워하는 기질) 및 관찰된 행동억제, 그리고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순종행동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과 logistic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모든 회귀분석에서는 먼저 아동의 성을 1단계에 투입하였고 기질 및 행동억제 중 하나를 2단계에 투입하였다. 이는 행동억제를 기질의 한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연구 설계에서는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였다. 3단계에는 처벌지향적 양육행동을 투입하였으며, 4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성과 기질(또는 행동억제), 성과 양육행동, 기질(또는 행동억제)과 양육행동 간의 2-way 상호작용변인을, 마지막 7단계에서는 아동의 성, 기질(또는 행동억제), 양육행동간 3-way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은 Aiken과 West(1991)를 참고로, 전체 변인 즉 3-way 상호작용이 투입된 모델이 유의할 경우(즉 7단계)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높은 단계에서의 모델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그 아래 단계의 모델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초분석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변인들 즉, 아동의 성, 기질 및 행동억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두가지 순종행동간의 단순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아동의 성이나 기질, 행동억제는 어머니의 처벌적인 양육행동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나 두려워하는 기질은 행동억제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42, p<.001$). 한편, 종속변수인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순종정도는 비록 경계선적인 수준이기는 하나, 아동의 성 및 두려워하는 기질, 행동억제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은 순종행동을 보였고,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두려워하는 기질일수록 순종정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까

<표 1> 연구 변인들 간 Zero-Order Correlations

	1	2	3	4	5	6	7
1. 성 ^a	-						
2. 까다로운 기질	-.13	-					
3. 두려워하는 기질	.05	.01	-				
4. 행동억제총점	.12	.14	.42***	-			
5. 처벌적 양육행동	-.14	-.12	.01	-.14	-		
6. 만족지연 순종	.19 ⁺	.09	.18 ⁺	.20 ⁺	.02	-	
7. Clean-up 순종 ^b	.15	-.24 [*]	.02	-.15	.05	.05	-

⁺ $p<.10$ $*$ $p<.05$ $**p<.01$ $***p<.001$

a. Dummy 남아=0, 여아=1 b. Dummy 불순종=0, 순종=1

다로운 기질은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순종행동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행동은 까다로운 기질($r=-.24, p<.05$)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 기질이 까다로울수록 *clean-up*과제에서 순종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만족지연과제와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행동은 서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r =.05, ns$). 본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두 과제에서 나타나는 순종점수 각각에 대해 예측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Clean-up* 과제에서의 순종행동에 대한 아동의 성, 기질 및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의 예측력

1) 성, 기질 및 처벌적 양육행동과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행동

아동의 성, 까다로운 기질, 처벌적 양육행동을 독립변인으로, *clean-up*과제에서의 아동의 순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한 logistic 회귀 분석 결과, 까다로운 기질을 투입한 2단계 모델

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6.468, df=2, p=.039$), 3단계부터 7단계까지 처벌적 양육행동이나 상호작용변인을 투입하였을 때는 그 어떤 경우도 전체모델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까다로운 기질은 *clean-up*과제에서 순종을 유의하게 예측하여($\beta=-.865, p=.044, \text{Odd ratio}=.421$),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일수록 *clean-up*과제에서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기질 중 두려워하는 기질을 투입하였을 때는 성이나 기질, 처벌적 행동 변인 및 각각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한 그 어느 모델도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 행동억제 및 처벌적 양육행동과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행동

행동억제 변인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전체모델이 유의하였다($\chi^2=17.169, df=7, p=.016$). 즉, <표 2>에서 보듯이 성의 주효과($\beta=1.327, p=.019, \text{Odd ratio}=3.77$)가 나타나 여아는 남아보다 약 3.77배 높은 순종행동을 보였다.

<표 2> 아동의 *clean-up*과제 순종행동에 대한 성, 행동억제 및 처벌적 양육행동의 Logistic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SE	Wald statistic	Odd ratio
성(A) ^a	1.327	.567	5.479*	3.768
행동억제(B)	.020	.097	.041	1.020
처벌적 양육행동(C)	.184	.503	.135	1.203
A×B	-.146	.117	1.551	.864
A×C	.733	.998	.539	2.081
B×C	-.340	.203	2.815 ⁺	.711
A×B×C	.670	.350	3.198 ⁺	1.872
Constant	.389	.345	1.270	1.476

⁺ $p<.10$ * $p<.05$

a. Dummy 남아=0, 여아 =1

한편, $p < .10$ 수준에서 행동억제와 처벌적 행동 간의 2-way 상호작용 효과($\beta = -.340, p = .09, \text{Odds ratio} = .71$) 및 아동의 성, 행동억제, 처벌적 양육행동 간의 3-way 상호작용 효과($\beta = .627, p < .07, \text{Odds ratio} = 1.87$)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검증결과,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는 우연적인 오차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3.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순종행동에 대한 아동의 성, 기질, 행동억제 및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의 예측력

1) 성, 기질 및 처벌적 양육행동과 만족지연 과제에서의 순종행동

기질 중 우선 까다로운 기질을 변인으로 금지 상황인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순종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든 상호작용 변인이 포함된 전체모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7, 76) = 2.355, p = .031$], 이 모든 변인들이 순종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은 약 18% ($R^2 = .178$)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나듯이 성의 주효과($\beta = .263, t = 2.409, p = .018$)와 까다로운 기질의 주효과($\beta = .409, t = 2.275, p = .026$)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적 양육행동의 주효과는 경계선적 수준에서 유의하였다($\beta = .196, t = 1.697, p = .094$). 즉 여아가 남아보다 순종적이었으며, 처벌적인 양육을 할 때, 만족지연과제에 대한 순종이 높은 경향이 있는 한편, 예상과 달리 까다로운 기질은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순종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 까다로운 아동이 순종적이었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질과 처벌적 행동의 2-way 상호작용효과($\beta = -.508, t = -2.531, p = .013$) 및 아동의 성과 까다로운 기질, 처벌적인 양육행동의 3-way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beta = .520, t = 2.818, p = .006$), 까다로운 기질이나 처벌적 양육행동 자체보다는 양육행동과의 상호작용적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성과 까다로운 기질, 처벌적 양육행동 간의 3way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남아와 여아 각 집단에 대해 까다로운 기질(A)과 처벌적 양육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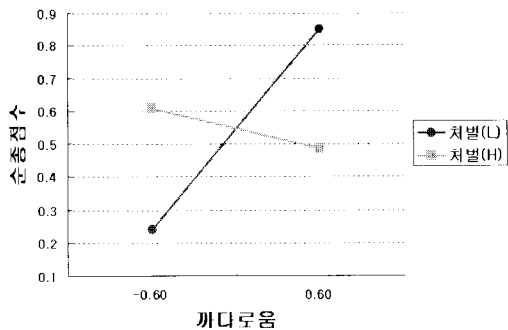
<표 3> 만족지연 과제 순종행동에 대한 아동의 성, 까다로운 기질 및 처벌적 양육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β	SE	t	P
성(A) ^a	.202	.263	.084	2.409*	.018
까다로운 기질(B)	.204	.409	.107	2.275*	.026
처벌적 양육행동(C)	.104	.196	.061	1.697 ⁺	.094
A×B	-.193	-.244	.136	-1.418	.160
A×C	.100	.094	.122	.816	.417
B×C	-.419	-.508	.166	-2.531*	.013
A×B×C	.568	.520	.202	2.818**	.006
Constant	.516		.061	8.463***	.000

a. Dummy 남아=0, 여아=1

$F(7, 76) = 2.355, p = .03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남아의 만족지연과제 순종행동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과 처벌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

(B) 및 그 상호작용(A×B)을 예측변인으로 중다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남아의 경우는 전체모델이 유의하였으며[F(3, 37)=3.063, p=.040], 까다로운 기질의 주효과(β=.316, t=2.034, p=.049)와 까다로운 기질과 처벌적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β=-.416, t=-2.559, p=.015)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의 경우는 모델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F(3, 39)=1.512, p=.226, ns].

이에 남아들만을 대상으로 Aiken과 West (1991)의 제안에 따라 처벌적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 회

귀식을 산출한 후, 까다로운 기질의 평균과 +1 SD를 기준으로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plotting 하였다. 그 결과, 그림1에서 보듯이 까다로운 남아는 처벌적 행동이 낮을 때 특히 높은 순종행동을 보였으며, 까다롭지 않은 남아는 처벌적 행동이 높을 때 높은 순종행동을 나타내었다, 두 회귀선에 대한 사후검증결과도 이러한 차이를 뒷받침하였다(β=-.419, t=-.256, p=.015).

한편, 두려워하는 기질을 투입하였을 때는 어떤 모델도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2) 성, 행동억제 및 처벌적 양육행동과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순종행동

만족지연과제 순종에 대해 행동억제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까다로운 기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변인이 포함된 모델7에서 F값이 유의하였으며[F(7, 81)=2.868, p=.010], 이 모든 변인들은 순종행동의 변량을 약 20%(R²=.19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행동억제의 주효과(β=.614, t=2.833, p=.006)와 더불어 성과 행동억제의 2-way상호작용 효과(β=-.579, t=-2.642, p=.010)를 나타내었으나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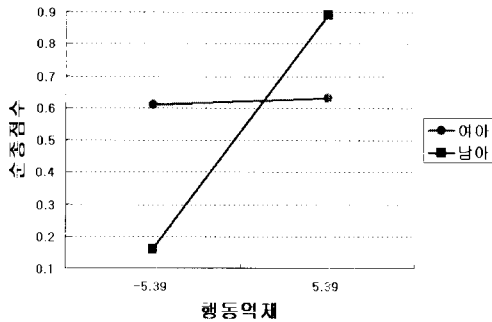
<표 4> 만족지연과제 순종행동에 대한 아동의 성, 행동억제 및 처벌적 양육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β	β	SE	t	P
성(A) ^a	.095	.124	.079	1.201	.233
행동억제(B)	.044	.614	.015	2.833**	.006
처벌적 양육행동(C)	-.032	-.053	.066	-.478	.634
A×B	-.047	-.579	.018	-2.642*	.010
A×C	.089	.075	.132	.677	.501
B×C	.000	-.002	.024	-.013	.990
A×B×C	-.045	-.235	.033	-1.359	.178
Constant	.576		.058	9.986***	.000

a. Dummy 남아=0, 여아=1

F(7, 81)=2.868 p=.010

*p<.05 **p<.01 ***p<.001



(그림 2) 만족지연과제 순종행동에 대한 성과 행동억제의 상호작용

적 양육행동의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의 성과 행동억제간의 2-way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에 따라 회귀식을 산출하고 plotting을 한 결과, <그림 2>에서 보듯이 행동억제가 낮을 경우는 여아가 남아보다 순종적이었으며, 행동억제가 높을 경우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순종행동을 나타내었다. 사후검증 결과, 행동억제수준에 따른 순종행동의 차이는 남아의 경우만 유의하였다($\beta=.448, t=3.212, p=.003$).

IV. 논 의

본 연구는 24개월 된 아동 97명(남아 47명, 여아 5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 기질, 및 행동억제 성향과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이 clean-up과제와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아동의 순종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단순 상관관계분석 결과, 아동의 성이나 두려워하는 기질, 행동억제는 만족지연 과제에서의 순종과 경계선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여아

가 남아보다 순종적인 경향을 나타냈으며, 두려움이 크거나 행동억제 성향이 높을 때 더 순종적인 경향을 보였다. 한편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은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까다로운 아동일수록 순종하지 않았다.

둘째, clean-up과제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까다로운 기질을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는 기질의 주효과만 나타났다. 즉 까다로운 기질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인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어머니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 한편, 행동억제 변인을 투입하였을 때는 성의 주효과만 나타나, 여아는 clean-up과제에서 남아보다 훨씬 더 순종적이었다.

셋째,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순종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성과 까다로운 기질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처벌적 양육행동은 경계선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까다로운 기질과 처벌적 양육행동의 2-way 상호작용효과 및 아동의 성, 까다로운 기질 및 처벌적 양육행동간 3-way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순종적이었으며,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때 순종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까다로운 기질과 처벌적 행동 간의 관계는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남아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고 싶은 행동을 참는 금지상황인 만족지연과제에 대해, 까다로운 남아는 처벌적이지 않을 때 더 잘 순종하는 반면, 까다롭지 않은 남아는 처벌적일 때 더 순종적이었다.

한편, 행동억제 성향은 만족지연 순종에 주효과 및 아동의 성과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은 만족지연과제에서 순종적이었으나, 이러한 관계는 성에 따라 차이

를 보여, 행동억제가 높은 경우에는 남아가 높은 순종행동을 나타낸 반면, 행동억제가 낮을 때는 여아가 높은 순종행동을 보였다. 또한 행동억제의 높고 낮음에 따른 순종정도의 차이는 남아에게서 두드러졌다.

넷째, 만족지연과제와 *clean-up*과제 모두에서 두려워하는 기질을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는 그 어떤 주 효과나 상호작용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clean-up*과제 순종과 만족지연과제 순종 모두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순종적이었다. 한편 행동억제는 만족지연과제 순종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행동억제가 낮을 경우에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순종행동을 보였으나 행동억제가 높을 경우는 남아가 훨씬 높은 순종행동을 보였으며 행동억제에 따른 순종정도의 차이는 남아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예상한 바와 같이 처벌적 양육행동은 직접적인 효과대신 까다로운 기질과 상호작용하여 만족지연 순종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순종상황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은 까다로운 기질만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찰된 행동억제는 만족지연 과제에서의 순종을 예측하였으나, 어머니가 보고한 두려워하는 기질은 두 상황 모두에서 순종과 관련이 없었다.

성의 주 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예 : 광혜경 · 조복희, 1999; Braungart-Rieker et al., 1997; Chen et al., 2003; Houser et al., 2003)을 지지한다. 한편 대체로 여아가 순종적이나, 남아의 경우 행동억제로 인한 영향이 여아보다 더욱 크다는 점은 특히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러한 성차에 대한 의문은 우선, 만족지연과제와 *clean-up*과제 모두에서 여아들이 남아

보다 높은 순종을 보인 것으로 보아, 순종에 대한 사회화 압력이 남아보다 크기 때문에 행동억제의 영향이 덜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잠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줍은 남아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 여아보다 훨씬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에 비추어볼 때, 낯선 실험실 상황에서 행동억제를 보이는 남아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여아보다 순종적일 수 있다.

한편, 처벌적 양육행동이 까다로운 기질 정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쳐, 특히 까다로운 남아는 처벌적이지 않을 때 만족지연과제에서 더 잘 순종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처벌적인 양육행동이 순종행동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부분의 연구들(신영아, 2007; Chen et al., 2003; Crockenberg & Litman, 1990; Houser et al., 2003)과는 다른 결과이다. 처벌적인 양육행동이 순종행동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본 연구 결과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처벌적 양육행동의 주 효과를 밝힌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육행동과 기질간의 상호작용을 변인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 및 내면화된 행동을 중심으로 기질과 양육행동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Kochanska(1997)은 기질과 순종행동간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이 중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어머니의 처벌적인 양육행동의 직접적인 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양육행동 외에 아동의 애착안정성(또는 내적 작업모형)등 제 3의 변인으로 인한 영향일 수 있다. 즉 Kochanska 등(2004)이 제안하였듯이 양육행동 자체보다 특정 양육행동으로 인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순종이나 도덕적 행동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양육행동 외에 부모 자녀관계의 질 등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몇 가지 연구방법에서의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다. 첫째, 순종행동은 측정되는 상황(예 : 가정 또는 실험실, 보육현장)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가정에서의 순종행동과 실험실에서의 순종행동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변인도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보고한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보고한 일상생활에서의 불순종과 관계가 된다는 연구 결과(신영아, 2007)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용 질문지로 양육행동을 측정하였기에 순종과 직접 관련된 양육행동보다는 일반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는데 그쳤을 수 있다. 본 연구 설계에서처럼 특히 어머니가 함께 있는 상황인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태도나 행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연구들(예 : Chen et al., 2003; Kuczynski & Kochanska, 1995; Braungart-Rieker et al., 1997)처럼 그 상황에서의 모자간 상호작용을 측정한다면, 양육행동으로 인한 주 효과가 나타나거나 상호작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 이 같은 가능성은 만족지연과제에서 30개월 된 아동의 순종점수가 만족지연과제에서의 어머니의 통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한편, *clean-up*과제에서의 통제행동과는 전혀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Braungart-Rieker 등(1997)의 연구 결과로도 뒷받침된다.

둘째, 순종의 지표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즉, 다른 연구들에서는 Kochanska와 Aksn(1995)의 분류기준에 준하여 자발적이고 열심히 하는 순종(committed compliance)부터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해야 하는 순종(situational compliance), 어머니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시

하는 불순종(passive noncompliance), 어머니의 요구에 강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불순종(overt protest)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순종 또는 불순종으로만 분류한데 기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Braungart-Rieker 등(1997)이나 Chen 등의 연구(2003)에서도 순종유형이나 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의 효과는 차이가 있어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committed) 순종은 처벌적 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상황적(situational) 순종과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처벌적 양육행동과 순종과의 관계는 순종유형이나 수준을 구별하여 연구함으로써 보다 명확해 질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금지상황인 만족지연 과제에서의 순종과 요구상황인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을 합산하여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Chen et al., 2003; Houser,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clean-up*과 만족지연 과제에서의 순종 정도는 무관하였으며, 까다로운 기질과 아동의 성만이 *clean-up*순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변인도 순종과제에 따라 달랐다. 결국 많은 연구들에서 순종의 지표로 각각 또는 합산하여 사용되는 만족지연과제와 *clean-up*과제에서의 순종은 엄밀히 말하자면 그 요구내용이나 행동특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만족지연 상황에서는 금지된 행동에 대한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아동에게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한편, *clean-up*과제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얼마나 잘 수용하는가를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순종행동 연구에서는 두 과제 점수를 합하는 대신, 각기 따로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끝으로 두려워하는 기질이 두 과제 모두에서

순종을 예측하는 변인이 아닌 것은 예상과는 다르다. 두려워하는 기질과 행동억제간의 정적인 관계는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을 뿐 아니라, 선행 연구들(정옥분 등, 2002; Kagan, 1989; Park et al., 1997) 에서도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억제와는 다르게 전혀 순종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행동억제가 정서조절능력의 부족에 기인하므로 행동억제가 높을수록 불순종할 수 있다는 가정과는 달리, 대체로 행동억제와 순종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보고한 두려워하는 기질보다는 실험실에서 측정된 행동억제 정도가 실험실 상황에서의 순종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순종행동이 과연 두려워하는 기질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 규명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본 연구는 주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대한 성 및 기질과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는 점, 특히 어머니가 보고한 기질이나 순종 대신 관찰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강점을 지닌다. 또한 어머니가 보고한 두려워하는 기질과 함께 관찰자료인 행동억제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clean-up* 순종행동을 단순화한 점, Q-sort로 측정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신뢰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지닌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순종행동의 지표가 되는 행동특성(예 : 바람직한 행동의 요구 또는 금지에 대한 요구)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clean-up*과제의 경우는 순종행동을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보다 질적인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순종여부는 부모의 요구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Kaler & kopp, 1990)나 요구

내용(Kuczynski & Kochanska, 1995)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 장면에서의 순종을 연구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어머니 보고로 측정된 양육행동 대신 순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거나, 가정이나 보육기관 등 여러 환경적 맥락에서의 순종행동 연구를 통해 순종행동발달에 미치는 아동의 특성과 환경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가 보다 분명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곽혜경 · 조복희 (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 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정옥분 · Rubin, K · 박성연 · 윤종희 · 도현심(2002). 걸음마기 아동의 행동억제 : 아동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4), 71-88.
- 신영아(2007). 걸음마기 아동의 순종행동에 관련된 변인들 : 아동의 성, 연령,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요구내용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하지영 · 박성연(200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2), 55-74.
- Aiken, L., & West, S. (1991). *Multiple regression :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 Sage.
- Block, J. (1981).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CRPR) : A set of Q items for the description of parental socialization attitudes and value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Human Development.
- Braungart-Rieker, J., Garwood, M., & Stifter, C. (1997). Compliance and non compliance : the roles of

- maternal control and child temperament.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 411-428.
- Calkins, S., & Fox, N. (1992). The relations among infants temperament, secur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al inhibition at 24 months. *Child Development*, 63, 1456-1472.
- Calkins, S., Fox, N., & Marshall, T. (1996). Behavioral inhibition and physiological antecedents of inhibited and uninhibite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523-540.
- Cheah, C., & Park, S. Y. (2006). South Korean mothers' beliefs regarding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in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 61-75.
- Chen, X., Rubin, K., Liu, M., Chen, H., Wang, L., Li, D., Gao, X., Cen, G., Gu, H., & Li, B. (2003). Compliance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 A cross-cultur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428-436.
- Crockenberg, S., & Litman, C. (1990). Autonomy as competence in 2-year-olds : Maternal correlates of child defiance, compliance, and self-asser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61-971.
- Feldman, R., & Klein, P. S. (2003). Toddlers' self-regulated compliance to mothers, caregivers, & fathers :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social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9, 680-692.
- Goldsmith, P. (1988). *The Toddler Behavior Assessment Questionnaire*. Oregon Center for the Study of Emotion Technical Report, No. 88, University of Oregon.
- Houser, K., Schuetze, P., & Eiden, R.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and child compliance. *Poster presentation at a meeting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lorida.
- Kagan, J. (1989). Temperamental contributions to 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 668-674.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 Temperament in human nature*. New York : Basic Books.
- Kaler, S., & Kopp, C. (1990). Compliance and comprehension in very young toddlers. *Child Development*, 58, 1459-1473.
- Kochanska, G. (1993). Toward a synthesis of parental socialization and child temperament in early development of conscience. *Child Development*, 64, 325-347.
- Kochanska, G. (1995).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discipline, and security of attachment : Multiple pathways to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597-615.
- Kochanska, G. (1997). Multiple pathways to conscience for children with different temperaments : From toddlers to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28-240.
- Kochanska, G., & Radke-Yarrow (1992). Early childhood inhibition and the dynamics of the child's interaction with unfamiliar peer at age five, *Child Development*, 63, 325-335.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chanska, G., Forman., & Coy, (1999). Implications o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infancy for socialization in the second year of lif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2, 246-265.
- Kochanska, G., Aksan, N., Knaack, A., & Rhines, H. (2004). Maternal parenting and children's conscience : Early security as moderator. *Child Development*, 75, 1229-1242.
- Kopp, C.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uczynski, L., & Kochanska, G. (1995). Function and Content of Maternal Demands : Developmental

- Significance of Early Demands for Competent Action. *Child Development*, 66, 616-628.
- Park, S. Y., Belsky, J., Putnam, S., & Crnic, K. (1997). Infa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3-year inhibition : Exploring stability and lawful discontinuity in a male samp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18-227.
- Park, S. Y., & Cheah, C. (2005).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24-34.
- Rothbart, M.,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In M. Lamb & A. Brown(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pp.37-86). Hillsdale, NJ : Erlbaum.
- Rubin, K., Coplan, R., Fox, N., & Calkins, S. (1995). Emotionality, emotional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49-62.
- Rubin, K., Hastings, P., Stewart, S., Henderson, H.,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 467-483.
- Rubin, K., Burgess, K., Kennedy, A., & Stewart, S. (2003). Social withdrawal and inhibition in childhood. In E. Mash & R. Barkley(Eds.), *Child psychopathology*(pp. 372-406). 2nd ed., NY : Guilford.
- Rubin, K., Hemphill, S., Chen, X., Hastings, P., Sanson, A., Coco, A., Zappulla, C., Chung, O. B., Park, S. Y., Doh, H. S., Chen, H., Sun, L., Yoon, C. H., & Cui, L. (2006). A cross-cultural study of behavioral-inhibition in toddlers : East-West-North-South.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0, 219-226.
- Scarr, S., & McCartney, K. (1983). How people make their own environments : A theory of genotype-environment effects. *Child Development*, 54, 424-435.
- Schaffer, H., & Crook, C. (1980). Child compliance and maternal control technique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4-61.
- Schneider-Rosen, K., & Wenz-Gross, M. (1990). Patterns of compliance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Child Development*, 61, 104-112.
- Stifter, C., Spinrad, T., & Braungart-Rieker, J. (1999). Toward a developmental model of child compliance : The role of emotion regulat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70, 21-32.
- Vaughn, B., Kopp, C., & Krakow, J.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 Wachs, T., & Gandour, M. (1983). Temperament, environment, and six-month cognitive-intellectual development. A test of organismic specificity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6, 135-152.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7월 6일 채택